

신앙칼럼

우리 성화의 실천적 실행

바로 사도는 그의 다마스코에서의 회심에서 로마에서 치명하시어 돌아가실 때까지 약 23년간 을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모든 사람들을 설전해서 도우면서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었고, 외방의 선교에 일생을 바치시어 우리 성교회를 전세계로 널리 알리려 노력하였다. 특히 자신이 전교하여 건설한 테살로니카 교회가 전아카이야에서 널리 알려진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해준데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다.

다음에 인용하는 바로사도의 그들교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화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임하여야 함을 절절하게 말하고 있는 그를 만나게 된다.

지난주의 주보에 게재한 나의 글인 ((성화의 여정에 있는 우리))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으나 그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 테살로니카서의 인용을 통해 그 선명하고 확실하며 실천하기에 아주 쉬운 방법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정성을 다해 돕고 순명하며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말씀과 함께 예언자들을 없이 여기지 말고,성령의 불꽃을 끄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때까지 악한 것을 피하고 선을 추구함으로 성스럽게 자신을 보존하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최후의 성화를 이루라 말씀하신다.

마지막 권고와 인사

1 테살로니카 5:12-23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 불교의 간단한 성화의 방법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아마 우리 성교회의 가르침과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을 발견할 것이다.

장병들을 교화시킴!

너그럽게 베풀면, 복과 덕을 증대시키고, 욕 됴를 참으면 모든 원망을 없이 하며, 선하게 하면 모든 잘못을 없애고, 욕심을 버리면 자연히 해탈하게 된다.

教化兵將品.

隋. 閻那崛多譯(523 - 600)

布施增長大福德, 忍辱一切怨仇無;
善人棄捨於諸非, 離欲自然得解脫.

一選自《佛本行集經》

글/유병기 베네딕도



부활
제 6 주일

2024년
05월 05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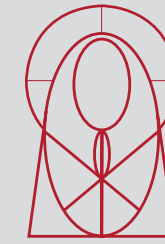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화-금요일
(10:30AM~3: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삼각지 성당 유리화 (심순화 카타리나)〉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사도행전 10,25-26.34-35.44-48

화답송 시편 98(97),1,2-3,3-4(© 2참조)



후렴.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 2독서 요한 1서 4,7-10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요한복음 15,9-17

성가 입당 244 봉헌 511,0211 성제 178, 163 파견 135

미사지향 (연미사)

- 선집환(마리아) - 가족
- 감명자(헬레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이영실 - 가족
- 최병욱 - 이명호(비비안)
- 온형렬 - 박화성(헬레나)
- 최심자(로마나) - 강기영, 서현주(데레사)
- 김갑이(헬레나) - 염미라(세실리아)
- 김문자 (세실리아) - 성해성(젼마)
- 김준호(베드로), 김성호(루수), 김 엘리자벳, 김영균(요셉), 심 밧또로메오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사목회, 대건회
- 오현주(요한) 부제님 - 사목회, 대건회, 야고보회, 자모회, 성가대, 썸머셋구역, 피스브릿지구역, 박안나, 김영필(안토니오), 맹순영(베로니카), 정데레사, 최정원(레지나), 제나, 박락준(베드로), 이희숙(데레사), 오송애(클레어), 최현지(안토니아), 김세현(스텔라), 김성일(베드로) 박상배(스테파노)
- 오애희(유리안나) - 가족, 박안나
- 오옥자(데레사) - 박안나, 정데레사, 박락준(베드로)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윤 넬리 - 가족, 오옥자(데레사)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한지혜(크리스티나) - 야고보회, 이용문, 김안나
- 썸머셋 구역원 - 조현실(테오도라)
- 이희숙(데레사) - 전옥주(글라라)
- 문마일리(젼마) - 최정원(레지나)
- 이 케이트(이사벨라) - 카도너
- 박원종(본사야노) - 박상배(스테파노)
- 김수영(도미틸라) 김대규(아브라함) 신준교 - 성낙순(미카엘라)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4/28 주일 헌금 (155명).....\$1,320
- 감사헌금 (익명).....\$400
- 교무금 합계.....\$5,100
- 임문수(5) 서경호(4,5) 김안나(1-4) 채희백(5,6) 콰울리아나(5,6) 토레스(5,6) 조인(1-6) 박병태(3-5) 고성희(3,4) 이용문(4) 이호용(4,5) 정진오(1-6) 김현걸(3,4) 이지민(1-6)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율리아나)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콰 울리안나 김삼식(베드로)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2차 헌금

- 5월 5일 : Development of People(동유럽/라틴아메리카 선교 지원)
- 5월 12일 : 유틸리티

빵과 포도주 봉헌

- 5/5 우영인, 우선자
- 5/12 백헬렌, 박애순
- 5/19 이기순, 성낙순
- 5/26 김종화, 김귀옥

친교 봉사 일정

- 5/19 노스브런스워
- 6/16 노스에디슨+메타천
- 7/21 먼로

2024 Bishop's Annual Appeal

(Stay with us, Lord :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본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4/26 까지 약정된 금액은 \$30,930.00 (목표금액의 8..5%) 입니다.

5월 5일, 일요일, 11시30분 오묘한 부제님 첫 한국어 감사미사와 이어지는 리셉션에 OLM 모든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피스브릿지 구역 모임

- 일시/장소: 5/5 미사후 친교실

성모의 날 행사

- 일시/장소: 5/12 (주님승천 대축일) 미사중
- 화관 증정 / 꽃 봉헌 (단체/개인) / 성모님께 편지 봉헌

이스트브런스워 구역 모임

- 일시/장소: 5/18 토 저녁 6시 / 박정훈 베드로 형제님 댁

2/4분기 전체사목회의

- 일시/장소: 5/19 미사후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장소: 5/19 미사후 친교실

5월부터 사무실 근무 시간이 수-금, 오전 10:30 ~ 오후 4:30으로 변경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성체 기도문)은 각자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씌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깨끗이 해 주세요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0, 25-26.34-35.44-48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에 참여하여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요한1서 4, 7-10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10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복음 15, 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모 성월 기도

- 마리아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니다.
-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부활 삼중 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 기도합니다.
-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